

# 곡성군, 교통복지 '효도 택시' 확대 운영

### 47개→57개 마을로 지원 늘려 교통소의 지역 주민 불편 덜어

전라남도 곡성군의 교통복지인 '효도 택시'가 운영 대상이 관내 57개 마을로 확대 시행된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촌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제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이용권 배부를 7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용 요금은 관내 읍면 소재지는 100원, 생활권역 소재지는 1200원이며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지난 2015년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기 시작해 2020년 47개 마을이었으나 교통 불편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1일부터는 57개 마을로 확대해 10개 마을에 효도택시가 추가 운행된다.

효도택시 운행마을 중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효도택시 이용권 1인 1매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1인 1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효도택시 확대 운영으로 10개면 2000여 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권 확보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택시업체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보탬이 될 것으로 곡성군은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이 7월1일부터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한다.

곡성군 제공

한편 곡성군의 효도택시는 매년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 주민 23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

다. 효도택시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당부 나주시, 밝은색 옷·기피제 사용 등

전라남도 나주시가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진드기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일부 유충은 여름철에도 부화해 활동할 수 있다며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져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드물지만 쯤쯤가무시병 등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 야외 활동 후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쯤쯤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다.

이중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양말 착용 및 밝은색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발열,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

강용근 보건소장은 "여름철은 진드기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특히 고령층과 농업 종사자, 야외활동이 많은 시민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 어린이 환경 창작 판소리극 '배꼽잡는 슬로우' 공연 열린다 담양군, 7월4일 문화회관에서

전라남도 담양군은 오는 7월4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환경 창작 판소리극 '배꼽잡는 슬로우' 공연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꿈꾸는씨어터의 대표 콘텐츠로 지구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푸른바다거북 '슬로우'와 토끼 '뽀뽀'의 모험을 그린 창작 판소리극이다.

고전 판소리 '수궁가'를 재해석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전통 예술의 멋과 교훈을 현대적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담양군과 꿈꾸는씨어터가 공동 주관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담양군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는 티켓링크(<https://www.ticketlink.co.kr/product/57024>)에서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담양문화회관을 찾는 일이 군민의 일상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부터 학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시동' 장성군, 팀별 과업수행비 지원

전라남도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갖고 올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앞선 4월 공개모집을 통해 △트래블메이커(대표 김형철) △장미꽃간(대표 임수지) △장성호 수변길마켓(대표 정지희) △서삼어벤져스(대표 서동권) 4개 단체 21명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트래블메이커'는 장성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굿즈 제작과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장미꽃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개발하고 여성농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콘텐츠 제작과 체험 프로그램·플리마켓 운영으로 수변길마켓을 활성화한다.

'서삼 어벤져스'는 농산어촌유학생 유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을 지킨 김동수 열사 기념관 벽화 조성 등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선 활동계획과 포부를 발표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팀별 과업수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은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최근 장성군 북이면서 자위·의용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합동 소방훈련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 북이면-119 지역대, 합동 소방훈련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서 최근 북이 119지역대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북이면공중목욕장에서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소방대원

과 북이면 자위·의용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발생 인지, 전파 및 119 신고, 초기화재 진압, 피난·대피 순으로 진행됐다. 화재 진압

은 소방대원이 맡고 자위·의용소방대원들은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에 집중했다.

신미영 북이면장은 "초기진화 능력 함양과 빠르고 정확한 대처법 숙달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나주시, '제9회 백호임제 어린이 글짓기대회' 참가작 공모

### 오늘부터 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우는 전국 어린이 글짓기 축제인 '제9회 백호임제 어린이 글짓기대회' 작품을 7월1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백호임제 어린이 글짓기대회는 나주 출신 조선 중기 대표 문인 백호 임제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나주시 백호문학관이 주관해 매년 열고 있다.

올해 공모 주제는 '마음'이며 참가 어린이는 마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함께 그려 제출하면 된다.

형식에 제한은 없으며 글과 그림은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만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초등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4절 도화지에 글과 그림을 작성해 백호문학관에 직접 제출하거

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백호상(대상) 1명, 겸재상(최우수상) 2명, 소치상(우수상) 10명 등 총 40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는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수상자는 8월29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중 개최되며 수상작은 축제 기간부터 내년 5월까지 백호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전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음이라는 소재를 어린이만의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어린이들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